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, 한국 찾는 토트넘의 특별한 스토리 담은 다큐 3편 공개

2022. 7. 7.

- 7월 22일 토트넘 홋스퍼의 이야기 담은 다큐멘터리 3편 쿠팡플레이에서 공개
- ‘쿠팡플레이 시리즈’ 경기 중계부터 스포츠 다큐멘터리까지 국내 축구팬 위한 콘텐츠 확대

2022. 7. 7. 서울 - 쿠팡플레이가 토트넘 홋스퍼를 초청한 ‘쿠팡플레이 시리즈’ 개최를 기념해 다큐멘터리 3편을 서비스한다.

쿠팡플레이는 ‘모 아니면 도(All or Nothing)’, ‘더 레인(The Lane)’, ‘홈 어게인(Home Again)’ 등 토트넘 구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세 작품을 선보인다. 다큐멘터리 3편 모두 7월 22일(금) 오후 6시에 공개 예정이다.

‘모 아니면 도(All or Nothing)’는 총 9부작으로 구성된 해외 인기 스포츠 다큐멘터리 시리즈로,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메인 인물로 등장해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작품 중 하나다. 특히 구단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즌이라는 평가를 받는 2019-20 시즌 속 선수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

‘더 레인(The Lane)’은 토트넘의 옛 홈구장 화이트하트레인을 배경으로 토트넘의 역사가 담긴 1부작 작품이다. 긴 세월 런던의 랜드마크로 불리던 공간인 만큼, 그곳에서 치러졌던 토트넘의 명경기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의 꿈과 열정, 그들만의 굳센 유대감을 엿볼 수 있다.



7월 22일 | 금 | 쿠팡플레이에서 플레이하세요

‘홈 어게인(Home Again)’은 더 레인 철거 이후 런던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새로운 홈구장 ‘토티넘 홋스퍼 스타디움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1부작 다큐멘터리다. 공식 개장 후 손흥민 선수가 1호 골을 터뜨리며 화제를 모았던 토티넘 홋스퍼 스타디움의 전경과 매력 포인트를 국내 축구 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.

한편 토티넘은 손흥민을 비롯해 헤리 케인, 피에르 에밀 등 구단 내 최고 인기 스타플레이어들을 필두로 ‘쿠팡플레이 시리즈’에 참여한다. 쿠팡플레이는 토티넘 내한을 기념해 와우 멤버십 회원 대상 오픈 트레이닝 초청 및 팬미팅, 에스코트 키즈 참여 행사 등 국내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.

‘쿠팡플레이 시리즈’는 오는 7월 13일(수)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‘팀 K리그와 토티넘’ 간의 1차 친선경기에 이어 7월 16일(토)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‘토티넘 대 세비야’ 2차전을 진행한다. ‘쿠팡플레이 시리즈’의 모든 경기는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생중계된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